

전남 이윤리 소총 3자세 세계신기록 명중 '2관왕'

2022 창원장애인사격월드컵 이윤리, 10m 공기소총도 우승 광주시청 김근수 단체전 2관왕

전남 이윤리가 2022 창원장애인사격장애인월드컵 대회 소총 3자세 개인전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이윤리는 21일 창원에서 열린 이 대회 R8 50M 소총 3자세 종목 결선에서 최종 461.1점(세계 신기록)으로 1위에 올라 2관왕이 됐다.

그는 지난 18일 R2 10m 공기소총 여자 결선에서도 최종 249.1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 전남 선수로 유일하게 출전한 이윤리는 남편 이준희씨와 감독 선수로 호흡을 맞추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국제대회에서 기량이 검증돼 일찍부터 금메달 후보로 낙점받았다. 그는 2021년 장애인사격 국가대표로 출전해 2020도쿄패럴림픽에서 5위의 성적을 거뒀으며, 2008년 베이징패럴림픽 금메달, 2016년 리우패럴림픽 은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광주시청 김근수는 단체전 금메달 2개와 개인전 동메달 1개를 수확 다관왕에 올랐다.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두루 능하다는 평가를 받는 김근수는 이번 대회에서도 기량을 유감 없이 보여



이윤리가 2022 창원장애인사격장애인월드컵 대회 R2(10M 공기소총 여자)에서 사격하고 있다.

줬다.

김근수는 지난 19일 서훈태(경기도장애인사격연맹), 임주현(경남장애인사격연맹)과 함께 출전한 R4 SH2 10m 공기소총 혼성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어 20일 R5(10M 공기소총 혼성, SH

2) 단체전에 출전해 1900.6점을 기록, 금메달을 추가했다. 그는 R5 SH2 동메달도 추가했다.

그는 지난 2016년 리우패럴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을 뿐 아니라 2017년, 2018년, 2019년 장애인사격세계선수권대회 및 월드컵대회에서 세계신



R5(10M 공기소총 혼성, SH2)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낸 서훈태(왼쪽부터)·김근수·임주현.

〈대한장애인사격연맹 제공〉

기록을 포함한 단체전 금메달 7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한 바 있다. 개인전에서도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따냈다.

이번 대회는 세계장애인사격연맹(WSPS)이 주최하고 대한장애인사격연맹(회장 문상필)이 주관

하고 있다. 개인전 및 단체전 40개 종목 120개의 메달이 걸린 이번 대회에는 2022년 장애인사격 국가대표 선수단 23명 등 국내선수단 77명을 비롯해 세계 19개국 232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장애인탁구, 전국대회서 금 3·은 2·동 1

김영진·서수연·김성욱 우승

광주 장애인 실업팀이 오는 10월 열린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메달 전망을 밝혔다.

21일 광주시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광주시 장애인탁구 선수단이 최근 제10회 익산시사리장애인배 전국장애인탁구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광주 장애인탁구 선수단 32명(선수30, 임원2)은 실전 감각을 다듬기 위해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변함 없는 기량을 발휘, 전국체전에서 활약이 기대된다.

대한민국 장애인탁구의 간판 김영진(TT4), 서수연(TT2), 김성욱(TT7)이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경길(TT4)이 은메달, 이준(TT3)도 은메달을 따냈다. 남기원(TT1)은 동메달을 추가했다.

휠체어 테니스 광주 대표 권용구와 유진호는 16일부터 20일까지 올림픽공원 테니스경기장 열린 2022 서울코리아오픈 국제휠체어테니스대회 복



제10회 익산시사리장애인배 전국장애인탁구대회에 출전한 광주시 장애인탁구 선수단. 김영진(왼쪽부터)·남기원·김영진·이준·김경길, 조재관 감독.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식 8강에 진출했으며, 이준은 박동하 선수(대구)와 함께 출전한 복식에서 2위를 차지했다.

한편,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오는 10월 19일부터 24일까지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진행되는

다. 광주 선수단은 22개 종목에 437명(선수291, 감독·코치53, 보호자52, 임원41)이 참가할 예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2년 연속 우승 노리는 우리카드 개막전 승리 여자부 GS칼텍스 순천 컵대회 2년만에 우승

순천·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

2년 연속 프로배구 컵대회 우승을 노리는 '다빈딩 챔피언' 우리카드가 개막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우리카드는 21일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열린 2022 순천·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이하 컵대회) 남자부 A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한국전력을 세트스코어 3-1(18-25 25-16 25-16 25-17)로 꺾었다. 지난 4월 트레이드로 영입한 우리카드 세터 황승빈은 나경복(19점), 이강원(16점), 송희재(16점) 등 날개 공격수와 빠르게 손발을 맞췄고, 이적 후 첫 공식 경기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렸다.

황승빈은 블로킹 득점 3개와 재치 있는 오픈 공격으로 4점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여자부 GS칼텍스는 지난 20일 전남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끝난 결승에서 한국도로공사를 세트스코어 3-0(25-21 25-19 25-22)으로 완파, 정상에 올랐다.

이로써 GS칼텍스는 컵대회, 정규리그, 챔피언결정전을 내리 휩쓰는 '트레블'(3관왕)을 달성한 2020년 이래 2년 만이자 통산 5번째로 컵대회 촉매를 들고 우승 상금 5000만원을 받았다.

외국인 선수에 비급가는 파워풀한 공격을 펼친 문지윤은 기자단 투표에서 31표 중 21표를 휩쓸어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이번 대회에서 도로공사의 새 주포로 활약한 김세인은 21표를 받아 기량발전상(MIP)을 받았다. 권민지는 라이징스타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연합뉴스

펜키 볼, 유럽육상선수권 '3관왕'

여자 400m·400m 허들 첫 석권도

펜키 볼(22·네덜란드)이 2022 유럽육상선수권대회 3관왕에 올랐다.

볼은 유럽선수권과 올림픽, 세계선수권에서 유례가 없는 여자 400m와 400m허들 석권에 성공한 뒤 1600m 계주에서도 우승했다.

볼은 21일(한국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대회 여자 1600m 계주 결선에서 네덜란드 마지막 주자로 나섰다.

세 번째로 배턴을 받았지만, 볼은 놀라운 역주를 펼쳐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3분20초87을 기록한 네덜란드는 3분21초68에 레이스를 마친 폴란드를 제치고 우승했다. 네덜란드가 유럽선수권 여자 1600m에서 우승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볼은 지난 18일 여자 400m에서 49초44로 대회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20일 400m 허들 결선에서는 52초67의 대회 신기록을 작성하며 정상에 올랐다.

세계육상연맹은 "유럽선수권은 물론이고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등 육상 주요 대회에서 여자 400m와 400m 허들을 석권한 선수는 볼이 최초"라고 전했다.

볼은 이번 대회 자신의 마지막 레이스인 1600m 계주에서도 우승하며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에서 볼은 17일 400m 준결선, 18일 400m 결선, 19일 400m 허들 준결선, 20일 40m 허들 결선, 21일 1600m 계주 결선까지 다섯 연속 달렸다. 5번의 레이스(준결선 2번, 결선 2번)를 펼치는 동안 단 한 번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은 볼은 3개의 금메달을 손에 넣었다. /연합뉴스



유럽육상선수권 3관왕에 오른 펜키 볼. /연합뉴스

'체조 간판' 여서정, 개인 종합·도마 '2관왕'

영광서 열린 전국체조선수권

한국 여자 체조의 간판 여서정(20·수원시청)이 닉 달 만에 출전한 국내 대회에서 2관왕에 올랐다.

여서정은 21일 영광스포티움에서 끝난 2022 전국 대학·일반 체조선수권대회 여자 일반부 개인종합과 도마 종목에서 우승했다.

도마·이단평행봉-평균대-마루운동 4개 종목을 다 뛰는 개인종합에서 여서정은 51.300점을 획득해 2위 엄도현(19·제주삼다수)을 1.650점 차로 따돌렸다.

여서정은 개인 종목별 결선에서는 주 종목인 도마에서 1, 2차 시기 평균 12.583점으로 정상을 확인했다.

지난해 2020 도쿄올림픽 여자 도마에서 여서정은 동메달을 획득해 역대 한국 여자 체조선수로는

최초로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됐다.

여서정은 이번 대회 마루운동(12.000점)과 이단평행봉(12.533점)에서 각각 은메달, 동메달을 추가했다.

여서정은 지난 4월 대표 선발전에서 개인 종합 2위로 태극마크를 달았고 지난 6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는 도마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여자 단체전 은메달 수확에 앞장섰다.

남자 일반부에서는 전천후 선수 이준호(27·전북도청)가 마루운동-안마-링-도마-평행봉-철봉 6개 종목을 모두 뛰는 개인종합에서 81.075점을 받아 1위에 올랐다. 이준호는 평행봉(14.300점)과 철봉(14.167점)도 휩쓸어 3관왕을 달성했다.

2012년 런던올림픽 남자 도마 세계 챔피언인 양학선(30·수원시청)은 도마 1, 2차 시기 평균 14.033점을 획득해 1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헌트
2관	한산: 용의 출현
3관	늑
4관	헌트, 미니언즈2
5관	늑, 바다 탐험대 옥토포넛: 탐험선 대작전
6관	헌트
9관	한산: 용의 출현
7관 세네케를	늑, 탐간: 매버릭, 미니언즈2, DC 리그 오브 슈퍼-펫
8관 세네케를	비상선언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11시 음악산책
독일음악의 성지, 라히프치히
일시: 2022. 8. 29.(월)
장소: 광주공연마루
문의: 062-613-8235

포시즌 실내악 시리즈 I
김동현 무반주 바이올린 리사이틀
일시: 2022. 9. 5.(월)
장소: 광주공연마루
문의: 062-613-8235